

[당골계곡 해설 시나리오 모음집]

| <p>생애주기PG (중장년층)</p> | <h2>천제단 가는 길</h2> <p>- 그대의 安寧을 바란다.</p> | <p>활동장소 당골광장~당골1교 소요시간 90분 참가대상 40대 대한민국 현역 직장인 남성 20명 운영자 자연환경해설사 천서경</p> |
|--------------------------|--|---|
| <p>활동목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제단을 걷는 것을 인생에 비유하여 대상 스스로 자신과 공통점을 찾는다. • 회사와 가정 일로 자신을 돌보지 못한 대상에게 위안을 준다. • 자연을 관찰하는데 인문학적 해석을 사용하여 삶의 방향성을 그린다. | |
| <p>세대별 이슈</p> | <p>#개인의 스트레스 완화, #가족 간 소통 해소, #세대 간 갈등 해소</p> | |
| <p>준비물</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블릿 PC, 종이상자, 명언종이 등 | |
| <p>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산행을 위해 가벼운 체조 실시, 금지행위 안내 등 | |
| <p>단계</p> | <p>교육내용</p> | <p>교육시간</p> |
| <p>도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산국립공원 현황 - 태백산의 의미 - 당골의 어원 및 역사 • 천제단 가는 길; 그대의 인생 -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는 누구인가 | <p>10분</p> |
| <p>전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제단 가는 길; 세 개의 돌 - 현재의 돌; 석장승 - 과거의 돌; 암괴류 - 미래의 돌; 호식총 • 천제단 가는 길; 길의 의미 - 대상자신에 대한 고찰 • 천제단 가는 길; 반재에 오를 때 - 인생의 절반, 지천명에 다다를 때 | <p>70분</p> |
| <p>마무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제단 가는 길; 천제단 - 지나온 길과 남은 길에 대한 안녕을 기원 • 천제단 가는 길; 만남과 이별의 사이 - 그대의 인생이 안녕함을 기원 | <p>10분</p> |

세부내용

저는 우리나라 40대 남성 직장인 20명을 대상으로 한 ‘천제단 가는 길; 그대들의 안녕을 바란다.’는 제목의 중장년층 세대의 사회적 이슈인 개인의 스트레스와 가족과의 소통부재로 세대 간 갈등까지 겪고 있는 이 시대 현역들의 위안이 될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과장님은 보다 젊었던 그 시절을, 주임님은 그 시절의 아버님을, 선생님들은 본인 혹은 그 시절의 남편을 그리며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백산국립공원 해설사 천서경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짚어지고 계신 이시대의 현역, 선생님들을 뵙습니다. 전 서른하나로 벌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서른하나인 저희 남편의 10년 후, 그리고 16년 전 마흔하나의 나이로 돌아가신 그 시절 아버지를 그리며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태백산이자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이들이 소원을 빌고자 올랐다는 천제단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신라시대의 어느 왕이 나라의 안녕을 빌고자 이곳까지 친히 올랐고 신라시대의 그 왕이 오르기 전부터 정확한 연대 가능성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들이 가슴가득 염원을 품고 오르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염원을 품고 이곳까지 오셨나요?

(태블릿 PC활용) 천제단은 3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하늘, 땅, 사람에게 제를 지내는 천왕단, 장군단, 하단이 그것이죠. 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 이상, 소원’ 어찌면 현재 상황에서 닿기 힘든 간절함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제단 가는 길은 태백산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들의 발걸음으로 빚어진 길입니다. 우리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먼 이상의 천지인이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세 개의 돌도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돌을 지나야만 천제단에 이를 수 있죠.

그 세 개의 돌 중 첫 번째 돌이 지금 보이는 석장승입니다. 신라의 그 어느 왕이 친히 이곳까지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바로 이 석장승을 만들었습니다. 산이 굽어 먹고 살게 없었던 이곳 그 시절 아버지들은 얼마나 팍팍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왕이 온다는 말에 기대와 설렘에 부풀어 환영의 돌을 세웠죠. 그 돌이 남아 태백산을 지키는 문지기, 수호의 석장승이 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장승에 비해 그 수가 적어 희소성을 가진 문화재죠. 이 돌은 현재의 여러분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대들의 가슴가득 안겨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선생님들의 가정이죠. 그래서 출발하는 이곳, 부푼 마음 가득 산행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의 현재를 담은 돌입니다.

(태블릿 PC 활용) 두 번째 우리를 기다린 돌은 암괴류입니다. 지구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던 것 예전 수업시간에 들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는 빙하기의 주변으로 그 냉기에 돌 속의 수분이 얼고 다시 녹고를 반복하여 만들어진 30센티미터 이상의 암괴들이 넓게 쌓인 지형을 말합니다. 쇠도

불과 물로 그 온도의 극한을 넘어 더욱 강해지는 담금질을 하죠? 돌도 이렇게 그 속의 수분이 열고 녹으며 자신을 쪼개고 가장 단단한 부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내의 돌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과거이죠. 선생님들의 인생에서 지금 불혹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나요? 삶이란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불교의 희로애락처럼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거쳐 청춘의 터널, 책임의 굴레 속 그 무게를 견디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태블릿 PC활용) 세 번째 돌은 태백산 호랑이가 살던 시절 탐관오리에 쫓겨 이곳 두메산골까지 와서 호랑이를 피해 산에 살다 호랑이에게 당해 삶을 마감한 이들의 흔적, 호식총입니다. 호식총은 호랑이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을 달래기 위해 만든 무덤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깊은 산세에서 호랑이가 살았겠죠? 지금 시대의 호랑이는 무엇일까요? 나를 압박하는 직장상사? 알미운 직장동료? 아뇨, 그 시절 아버지도 지금의 선생님들도 가장 두려운 것은 가정이죠. 그 가정을 지켜야하기에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고 생계의 터전인 태백산을 호랑이와 함께 누볐던 과거 아버지들처럼, 두렵지만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앞서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삶이 다할 때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아버지를 무엇을 보고 유추할까요?

네, 그냥 밭에 차이는 돌도 존재의 의미는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말합니다. 인생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살 더 먹으면 저의 아버지 나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작년 서른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살았던 15년, 아버지 없이 살았던 15년에서 이제 아버지 없이 산 16년차입니다. 그 햇수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더해지겠죠. 그 그리움 또한 깊어질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나이에, 선생님들의 나이에 다다르면 그 시절 아버지의 마음의 깊이를 감히 헤아려볼 수 있을까요?

저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선생님들 스스로 가셔야 하죠. 먼저 길을 다녔던 이들이 길을 닦았고 나무계단도 만들고 이정표도 달아 놓았습니다. 그 중 태백산의 절반이란 '반재'에 오르시게 되면 선생님들의 10년 후, 하늘의 명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 50대의 스스로를 그려보시고 천제단에 다다를수록 염원은 가까워지지만 죽음에 가까워지는 나이 또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버지를 잃은 자녀입장에선 오늘 고기 먹고 예쁜 옷 입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얼굴 한 번, 같이 밥 한 번 먹었던 기억이 더욱 바랄 수 있습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회식도 좋고 모임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고 외로운 가장, 책임감에 눌린 자신이 아닌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이들과 행복한 현재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누가 아나요? 제가 미래의 선생님 자녀를 대신해서 전하는 전달자일지도요.
(종이상자를 꺼내며) 이 안에 선생님들이 가장 지키고자 하는 이 혹은 어린
시절 그대들의 외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뽑아보세요.
그 글귀를 적어도 오늘 천제단에 오를 때까지만 마음에 새기시고 찬란한 천
제단 아래엔 그 시절 아버지들과 지금의 선생님들을 닮은 돌이 있고 시간 여
행자인 듯 요상한 말을 하는 녀석이 있었단 것만 기억하시고 남은 길, 안전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산행처럼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이 허락하는
날까지 안전동행 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안녕을 바라는 시간
여행자 천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치유프로그램 | 자연에서 심을 찾다 | | 활동장소 소요시간 참가대상 참가인원 운영자 | 태백산국립공원 당골일원 60분 청년기(30-40세 청년등) 14명 자연환경해설사 이영희 |
| | 활동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에서의 힐링과 인문학적 감성을 충족시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 | |
| 준비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지카드, 식물사진, 구급키트 | | |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뱀조심, 벌조심, 돌부리조심 | | | |
| 단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 도입 (마음_노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프로그램 일정 소개 - 해설사 소개 및 대상자와의 관계형성 - 안전체조 및 주의사항 안내 <p> *태백산국립공원소개 - 태백산국립공원의 설립시기, 지정구역 - 관련 설화듣고 오늘의 소원생각해보기 </p> <p> *서식 식물소개 - 일본잎갈나무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경 -많이 조림된 이유 </p> <p> - 산수국 -꽃색이 변하는 이유 -한국 특산식물 </p> | 10분 | | |
| 전개 (숲에서의 힐링) | <p> *숲을 닮은 우리 - 함께 공생하는 숲의 생태계 살펴보기 - 숲을 닮은 우리의 모습 떠올리기 </p> <p> *숲속의 시인 - 숲과 관련된 시를 함께 읽어보고 감상나누기 </p> <p> *물처럼 살아가 - 낙동강,한강의 발원지 설명하기 - 노자 “처세술 ”살펴보기 </p> | 45분 | | |
| 마무리 (마음_울림) | <p> *마무리 인사 </p> | 5분 | | |
|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 | | | |

| | |
|-------------|---|
| <p>시나리오</p> | <p>저는 오늘 여러분을 태백산국립공원의 품 안으로 인도할 자연환경 해설사 이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p> <p>오늘 오신 선생님들 모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젊으시네요~</p> <p>이렇게 젊은 분들이 모두 CEO 들이라니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멋지세요~~</p> <p>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기운을 더 많이 받을것같은 예감이 드네요.~~제가 복이 많은가 봅니다.ㅎㅎ</p> <p>어떻게 아침은 드시고 오셨나요? 네~~</p> <p>바쁜일상 중에서도 아침 식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p> <p>아침식사는 하루를 시작할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한 비만이나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며 업무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p> <p>서울에서 오신걸루 알고 있는데 태백은 공기부터 다르죠?</p> <p>정말 잘 오셨구요~~</p> <p>이 상쾌한 공기에 오늘 흠뻑 취하시길 바랍니다.</p> <p>숲에서의 휴식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수 없는 치유의 휴식입니다.</p> <p>가지고 오신 고민이 있으시면 오늘 이곳에 몽땅 내려 놓으시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숲. 계곡의 물소리 등을 들으시며 온전히 쉬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구요,</p> <p>저는 이곳에서 1교까지만 함께 동행합니다</p> <p>산에 오시면 안전이 제일인거 아시죠?</p> <p>올라가는 길에 뱀조심. 벌조심. 발밑에 돌부리조심 하시구요, 간단한 준비운동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p> <p>준비운동(목, 팔, 다리운동)</p> <p>가는 길에 혹시 몸이 불편한분 계시면 제게 비상약이 준비되어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p> <p>태백산 정상으로 출발하기전 간단하게 국립공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p> |
|-------------|---|

| | |
|--|---|
| | <p>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생태계가 잘 보존 되어있는 곳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을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p> <p>여기서 퀴즈?</p> <p>혹시 태백산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국립공원인지 아시는 분? (22번째)</p> <p>네~~말씀니다. 22번째 국립공원입니다.</p> <p>이렇게 제 말에 호응해 주시는 분께는 선물이 있습니다.(손수건)</p> <p>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시작으로 총 22곳의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저희 태백산은 2016년 8월 22일에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p> <p>젤 막내둥이죠~~태백산은 “크고 밝은산” 이란 뜻입니다</p> <p>태백산 국립공원에는 오늘 탐방하실 천제단을 비롯해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세계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인 백천계곡, 그리고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최대 야생화 군락지 금대봉등 다양하고 뛰어난 생태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백산은 강원도 영월군과 태백시. 그리고 경상북도 봉화군의 경계에 있는 해발 1567m의 산입니다.</p> <p>예부터 삼한의 명산, 전국 12대 명산이라 하여 “민족의영산”이라 불리웁니다.</p> <p>또 태백산에서 발원하는 물이 영남평야의 젖줄인 낙동강과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한강, 삼척의 오십천을 이루니 국토의 종산이자 남한 모든 산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인 셈입니다.</p> <p>“태백산” 하면 민족의 영산 인건 다들 알고 계셨죠?</p> <p>단군신화에 명명된 산~!!</p> <p>삼한시대부터 하늘에 제를 올리며 소원을 빌던 산!!</p> <p>그렇습니다.</p> <p>태백산 정상에 올라가면 오래전부터 하늘에 제를 올리며 소원을 빌던 천제단이 있습니다.</p> <p>그곳에서 아홉 번 절을 하며 정성을 다해 하늘에 소원을 빌면</p> |
|--|---|

한해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원이 없으신 분들은 올라가시는 길에 오늘의 소원 생각해 보시구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바라는바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이동)

앞에 멋진 나무들이 우리를 반겨주네요

퀴즈? 이 멋진 나무의 이름 아는 분 계실까요? 일본잎갈나무 (맞으면 박수~짝짝짝- 선물증정)

네~~일본잎갈나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나무가 하늘을 향해 쪽쪽 뻗어 있어요.

소나무 친구 중 유일하게 가을에 낙엽이 들고 겨울에 잎이 떨어져 낙엽송이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가을에 이곳에 오시면 황금빛 길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고마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전국 어느 산에 가도 많이 보이죠?

이 낙엽송은 190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6.25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에 산림녹화사업으로 1960~70년대에 정책적으로 많이 심어졌어요. 빨리 자라고 곧게 자라는 목재의 특성으로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할 때 전봇대나 철도목의 재료가 되어 주었던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멘으로 된 철도레일 받침대만 보았죠?

저는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학교가는길에 기차길로 다닌 적이 많았는데요, 그때는 철로레일의 받침대가 모두 나무였어요.

그땐 재료가 일본잎갈나무인지 몰랐었지요. 알고 나선 이 잎갈 나무만 보면 친구들과 예쁘게 걸을려고 철로 위를 빼닥거리며 걸었던 추억들과 집에서 학교까지의 받침목이 몇 개인지 세며 걸었던 추억들이 떠오른답니다.

제겐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 고마운 나무입니다.

산수국

왼쪽을 보시면 숲길 옆으로 작은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수국과 비슷하고 백당나무와도 비슷하죠?
 산에서 피고 물을 좋아하고 국화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이어서
 산수국이라 합니다.
 6월에서 7월에 유성화와 무성화의 작은 꽃들이 모여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는데요,
 화려하고 큰 꽃잎은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헛꽃(무성화)이고,
 중간에 작게 모여 있는 것이 진짜꽃(유성화)입니다.
 이렇게 예쁜 청남색을 산수국이 아니면 누가 만들어 낼까요?
 산수국은 처음에 연한 베이지색에 초록빛이 감돌다가 점차 흰색으로
 다시금 시원한 청색으로 변했다가 붉은색, 연한 자주색으로 꽃색이
 변해서 팔선화라고도 부릅니다.
 꽃색의 변화가 심한 이유는 토양의 산도 때문입니다.
 중성이면 흰색, 알칼리성이면 분홍색, 산성이면 청색으로 변하는
 특성 때문에 인위적으로 토양에 첨가제를 넣어 꽃색을 원하는
 색으로 바꾸는 곳도 있다고 해요,
 또한 산수국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수국은 일본이나 영국에서 건너왔어요,
 우리나라 원산지로 조선말 영국으로 건너가 정관수술을 받고
 무성화만 피는 수국이 되었습니다.
 꽃집에서 파는 수국은 무성화만 피는 내시수국입니다.
 또한 수국은 꽃이 한꺼번에 피었다가 한꺼번에 져버리지만 산수국은
 꽃이 하나들 피어나서 오랫동안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동)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여러 종류의 나무들과 다양한 풀잎
 들을 보면서 올라왔죠? 힘드신가요?
 아직은 괜찮으시죠?
 태백산에 올라가려면 여기 있는 계곡을 지나 반재쉼터를 거쳐
 태백산 정상에 이르는데요, 사람의 일생을 100세로 가늠해서
 태백산과 비교한다면 저는 반재를 조금 지나서 올라가는 길이고
 여러분들은 3/1지점에 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저는 반재 조금 더 지나온 삶을 살면서

평탄치만은 앓았던 것 같아요. 사는 것이 녹록치가 앓더라구요.
오늘 여러분들은 태백산에서 모처럼 머리도 식힐 겸 휴가차 오셨고,
모두 중소기업 대표님 들인데 제가 큰 할 말이 있을까 만은
이 시원하고 아름다운 태백산에 와서 저를 만난 것도 여러분들과의
인연이라 여러분들께 숲을 색에 비교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초록색과 노란색 카드를 보여드립니다.

혹시 생각나는 나무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네 --일본잎갈나무입니다.

아주 푸르고 힘차며 하늘로 쪽쪽 뻗어 있었죠?

굉장히 키도 큼니다.

헌데 여러분? 이 멋진 나무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센 바람이나 폭우에 잘 넘어 진답니다.

혹시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무가 안정적으로 자라려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를 안정적
으로 뻗어야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파랑색과 보라색(분홍색) 카드를 보이며

자 이것을 보면 어떤 친구가 떠오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기특하다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친구입
니다.

바로 산수국입니다.

올라오면서 말씀 드렸지만 산수국은 다양한 색의 꽃을

피우는데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각기 다른색의 꽃을 피웁니다.

또한 종족번식을 위해 헛꽃까지 피우며 노력하고, 환경에 적응하
며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산수국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
는 힘든 일이 생기면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식물들도 부단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인 내
가 이것쯤이야--

제겐 교훈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 | |
|--|---|
| | <p>-흰색과 검정색 이것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너무 생똥맞죠? 혹시 빛의 삼원색 생각하시나요? 색의 삼원색은요? 저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왜? 세 가지 이상의 빛이 섞이니 흰색이 떠오르고, 또 세 가지 이상의 색이 섞이니 검은색이 나오더라구요. 사람들은 모두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생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무지개색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 개성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기치관 뿐만아니라 환경도 다르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출발지점인 삼십대 분들인데요, 황금시기죠!!</p> <p>여러분들은 잠재력이 있어 어떠한 색깔로도 나올 수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죠.</p> <p>오늘 미래의 대기업 대표님들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숲의 노래가 있어 가져왔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한분씩 좋아하는 배경을 비춰보며 읽어볼게요, (하늘. 물. 숲) 읽으시는 분은 감성을 실어 읽어주시고 듣는 분은 감상하실게요, ㅎㅎ 어떠셨어요? 사이사이로 빛이 들어오니 느낌이 또 다르죠? 같은 시를 읽어도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나무 위를 한번 보시겠어요? 풀잎 사이사이로 빛이 들어오죠?</p> |
|--|---|

나뭇잎들 사이로 비추는 햇빛 아래에는 그 빛을 받으며 또 다른 많은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곤충들과 동물들도 살고 있죠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숲은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숲을 보면 사랑과 배려가 느껴진답니다.
 우리네 삶과도 비슷해요.

살면서 나보다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려와 나눔을 또 꿈꾸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곳의 물길도 잠깐 봐 주시겠어요?
 굉장히 힘차게 흐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샘인 태백산의 용정에서 발원한 물이 앞에 보이는 계곡을 따라 낙동강 1300리를 흘러 남해로 가는 물길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헌데 이 물이 남해까지 흘러가는 동안 넓고 평탄한 물길만 존재할까요?
 가는 길에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기도 하고. 폭포를 만나면 부서 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생명수가 되기도 하면서 남해까지 흘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승승장구하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혹시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이 물길이 돌고 돌아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정체성만 갖고 도전한다면 결국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치수의 도라고 들어보셨죠?
 물은 담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것어요.
 유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노자의 (처세술)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구요,
 저도 여러분의 삶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태백산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구요,.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